[ 1 감사장 ]

“감사장을 만들까 하는데요.”

“저희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상장이나 표창장 같은 건 학교에서 학생한테 주는 거니까. 반대로 학생이 선생님에게 준다는 점에서도 느낌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었는데….

“…후후.”

은혜 선배의 반응은 미묘했다. 목도리를 살짝 올려 입을 가리고 작게 웃기만 했으니까.

“감사장은 어떻게 만들 생각이야?”

“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표창장 형식으로 만드는 법 나오지 않을까요?”

“후후. 그러네. 그걸 따라서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완성이겠어.”

“…너무 성의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냐.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 분명 기뻐하실 거야.”

“퇴직하시는 선생님한테 어울리기도 하고.”

입을 가린 채로 눈만 웃는 은혜 선배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상냥하고 어른스럽던 은혜 선배에서 무언가가 지워진 듯한 이상한 느낌.

달라진 은혜 선배의 분위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이번에 퇴직하시는 선생님 뭔 일 있나요?”

“음…. 후배가 궁금하면 알려줄 수도 있는데.”

“알려줄까?”

앞에서 웃는 은혜 선배의 모습은 내 기억 속의 선배하곤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상냥하고 어른스러운 은혜 선배의 모습이 지워지고, 다른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다.

내가 모르는 선배의 어떤 얼굴.

그것에 이끌리듯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럼, 뭐라도 마시면서 얘기할까?”

자리에서 일어난 은혜 선배는 다시 평소의 모습대로 돌아와 있었다. 아까 내가 느꼈던 게 다 거짓말인 것처럼.

“남은 게 녹차밖에 없는데 괜찮지?”

“아, 네. 괜찮아요.”

“후후. 도래솔 선생님은 단 거만 마셔서 항상 녹차만 남거든.”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선배가 티백이 담긴 종이컵 2개를 들고 돌아왔다.

“자, 여기. 다음엔 더 맛있는 걸로 준비할게”

“아, 아뇨. 녹차도 좋아해요.”

은혜 선배는 녹차를 아주 작게 한 모금만 마시곤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퇴직하시는 선생님 얘기. 교무실에서 몇 번 들은 적 있거든. 아직 정년퇴직하실 때가 아닌데 서둘러서 퇴직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퇴직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소문이야.”

생각보다 그리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냥 이른 퇴직 때문에 주위에서 괜히 생겨난 헛소문인가 보다.

“복권이라도 당첨됐다던가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야. 소문은 항상 나쁜 얘기가 많잖아.”

은혜 선배는 곤란한 듯이 웃으면서 얘기했다.

“선생님이 나쁜 일을 들켜서, 쫓겨나듯 퇴직하는 거라고 소문이 났어.”

“…선생님이 좀 불쌍하네요.”

하필 퇴직하는데 저런 소문이라니. 얼굴도 모르는 그 선생님이 안쓰러워졌다.

“후후. 글쎄. 소문이 그냥 나진 않으니까.”

은혜 선배는 그렇게 말하곤 종이컵을 들고 일어났다.

“이제 후배가 어떻게 할지도 정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 일어날게.”

“네. 상장은 제가 완성해서 선생님께 낼게요.”

“아, 그리고 상장 주는 사람은 나로 하면 돼.”

“어…. 글월고 학생 일동이 아니라요?”

“응. 내 이름으로 하면 돼.”

은혜 선배는 다시 목도리를 올려서 입을 가리곤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고 묻지 말라는 듯이, 은혜 선배는 학생회실에서 나갔다.